

KMI 북방물류리포트

VOL.114
DEC 04 2019

발간년월 2019년 12월 4일 (통권 제114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장영태 총괄 이주호 감수 길광수 담당 김엄지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TEL +82-51-797-4665 FAX +82-51-797-4659



주요 동향

- 러시아, 모노고라드 개수 감소 논의 중
- 인도기업, 극동지역 농업 프로젝트 시작
- 러시아 철도, 쿰바스 북서철도역으로의 수출용 석탄 철도운임 인하
- 러 강원도, 연해주 무역대표단 파견...136만 달러 수출상담실적 성과
- 우크라이나 항만물동량, 2019년 11월까지 호조...서부 및 남동부 지역, 하천을 통한 해양 항만 환적 증가세
- 카자흐스탄 악토베 주, 오렌부르크 간 육로 이용 활성화 기대

주요 통계

- 2019년 9월 러시아 수역별 항만 물동량
- 2019년 9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품목별 규모
- 2019년 9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
- 2019년 1분기, 2분기 운송수단별 물동량
- 2019년 1분기, 2분기 러시아 대중교통 여객수송량



주요 동향



러시아, 모노고라드 개수 감소 논의 중

■ 2019년 10월 모노고라드를 321개에서 170개로 감소시키는 안에 대해 하원의회에서 논의 중^{a)}이며, 2020년까지 결정할 것으로 예상됨

- 모노고라드란, ‘단일산업 도시’, 대표적 산업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그 산업의 발전이 도시 주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며, 도시의 재정, 복지 등에 또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도시임
- 2014년 7월 모노고라드 리스트^{b)} 발표했으며,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еречня моногородов) 2015년 4월 319개로 변경되었고, 2019년 8월 모노고라드 7개를 추가해 321개로 증가함^{c) d)}
- 2019년 발표된 리스트에 따르면, 페백시와 추코트카 자치구의 베린스키는 모노고라드 리스트에서 제외되었으며, 닛트바(Nytva)와 페름스키 크라이의 우랄스키 지역은 닛트벤스키(Nytvenski)로 통합되었음

■ 2019년 1월 모노고라드 개발펀드(상위기관 경제개발부)는 새로운 ‘모노고라드 개발 프로그램 2019~2024’^{e)}를 발표함^{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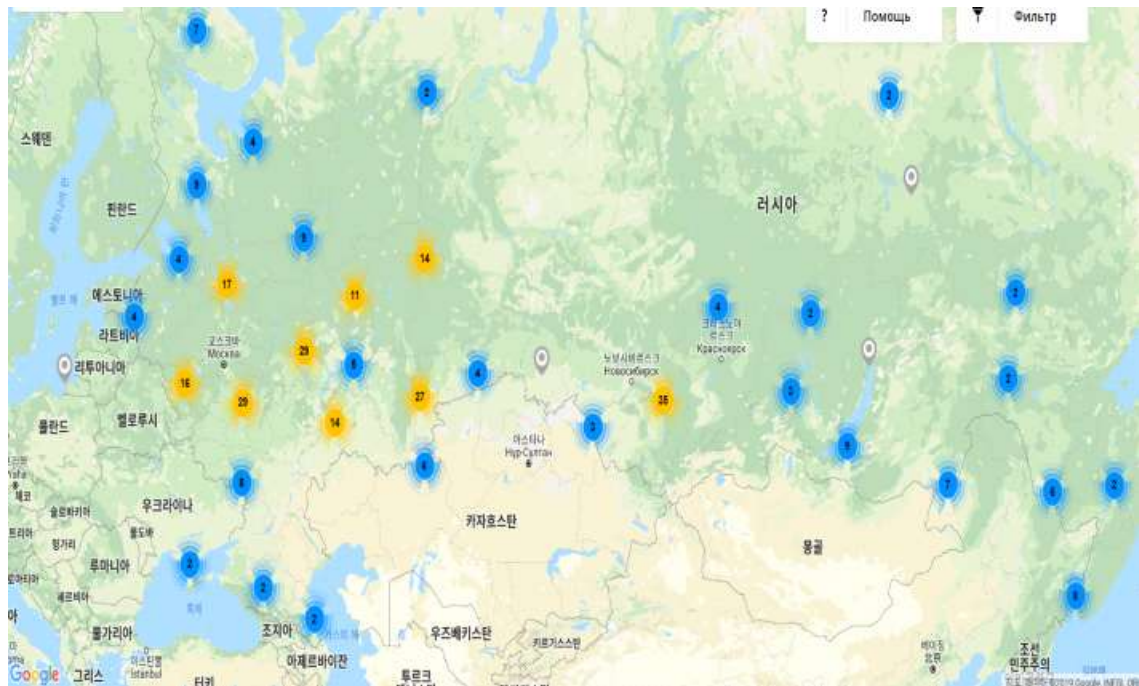
- 러시아 국책은행 VEB.RF의 마키예바 부총재(Makieva Irina Vladimirovna)가 펀드대표이며, 오레쉬킨(Oreshkin Maksim Stanislavovich)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이 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음
- 목표 : 모노고라드로 지정된 도시의 사회경제적 발전 추진
- 과제 : 모노고라드 투자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모노고라드 경제 다변화, 모노고라드 내 사회경제개발선도구역 지정 및 기능 확대 등
- 하위 프로그램 : 1. 모노고라드 개발의 법·제도 보완,
2. 모노고라드 경제발전,
3. 모노고라드내 국가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조건

— 예산 :

표 1. 모노고로드 프로그램 2019~2024 예산

기간	예산(십만 루블)	예산(만 달러)
2019	2,806,3	4,365
2020	11,151,5	17,346
2021	10,904,3	16,660
2022	10,904,3	16,660
2023	10,904,3	16,660
2024	10,904,3	16,660

그림 1. 주요 항만 위치



참고자료

- <https://ria.ru/20191029/1560330227.html>
-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еречня моногородов
-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9.07.2014 N 1398-р (ред. от 08.08.2019)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еречня монопрофильны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моногородов)>
- http://моногорода.рф/work/regions_and_cities/
- программы развития монопрофильных городов на 2019-2024 годы
- http://моногорода.рф/news/v_perechen_monogorodov_dobavleny_7_novykh_territoriy/

김엄지 연구원

(051-797-4776, umjikim@kmi.re.kr)

인도기업, 극동지역 농업 프로젝트 시작

■ 인도기업 ‘KGK’ 그룹은 극동연방관구 자바이칼 변경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작물재배를 시행할 계획임

- ‘KGK’ 그룹은 극동에서 처음으로 다이아몬드를 생산한 첫 번째 인도기업이며, 이번에는 자바이칼 변경에서 약 50만ha에 농업프로젝트를 시행할 계획임
- 극동투자수출지원청은 양국간 작물재배 환경이 다르고, 인도기업이 러시아 기후조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인도기업이 러시아 농업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힘
- 인도의 경우 1년 내내 따뜻한 기후로 수확이 가능하나 주로 개별 농장이 많음

■ 극동투자촉진 및 수출지원공사는 극동지역에서 미사용 농지면적에 대해 언급함

- 특히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농지면적 활성화를 위해 임대 또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사용되지 않는 농지를 포함한 ‘농업분야토지은행’ 설립 및 소유자가 없으며 미등록 토지를 정부 토지대장에 등록하도록 지시함
- 또한 소유자는 약 2만~5만ha의 농지를 투자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
- 이미 프리모리에 변경의 토지조사는 끝났으며 현재 자바이칼 변경, 부랴티아 공화국, 유대인 자치주, 하바롭스크 변경에서 진행되고 있음
-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소유 되지 않은 토지의 토지대장 등록을 위해 토지의 위치, 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임
- 이후 토지는 국가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소유권이 주어지며 선도개발구역에도 포함 될 수도 있음
- 선도개발구역에 포함될 경우 투자자들은 토지배분을 위한 경쟁절차 없이 농업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토지를 제공 받을 수 있음

■ 극동투자유치 및 수출지원공사는 외국인 대규모 투자자를 유치하는 것이 본인들의 임무이나 러시아 정부가 토지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함

- 미사용 임대 토지가 확인되면 임차인에게 임대조건 이행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즉시 실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계약 파기 법정소송을 제시할 수 있음

김은미 현지 리포터(국립극동교통대학교)
(051-797-4776, usea1004@gmail.com)

참고자료

a) <https://minvr.ru/press-center/news/23882/>(검색일: 2019년 12월 01일)

러시아 철도, 쿠즈바스 북서철도역으로의 수출용 석탄 철도운임 인하

■ 러시아 철도(RZD) 운임인하로 쿠즈바스에서 유럽으로의 석탄 수출 증가 예상

- 러시아 철도(RZD)는 2019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케메로보 주 내 역에서 악찌아블스꼬이 철도, 북부 및 칼리닌그라드 철도의 항만 근처 역 방향으로 발전용 석탄의 수출 수송에 대해 철도운임의 7.41%를 할인함. 이는 석탄 회사가 생산하는 발전용 석탄(thermal coal) 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케메로보 주 행정부, 러시아 철도가 북서부 철도항만역으로 석탄 운송을 위해 도입한 철도 화물 운임할인으로 인해 올해 말까지 4/4분기 이 지역에서 유럽 국가로의 석탄 수출이 39%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물동량 보장 시 할인이 제공되며, 7월에는 러시아 철도가 북 코카서스 철도의 항구근처 역 방향으로 발전용 석탄(thermal coal)을 운송하는 것에 대해 비슷한 할인이 도입되어 석탄 광부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혼잡한 동쪽으로 수출보다 상대적으로 운송이 원활한 러시아 남부 항구로 수출 일부를 전환함
- 쿠즈바스 지역에서 활동하는 석탄채굴회사 중 적어도 18개의 대형 석탄채굴회사가 이미 발전용 석탄(thermal coal)을 북서쪽 항구로 수출할 때 러시아 철도 할인을 이용할 의지를 밝힘

■ 〈수엑-쿠즈바스〉, 〈메첼〉, 〈쿠즈바스라즈레즈우골〉 석탄회사, 〈시반트라피트〉, 〈쿠즈바스 연료회사〉, 〈탈텍〉, 〈SDS-석탄〉, 〈스트로이서비스〉 등 모든 회사는 현재 물동량 조정 중

- 전(全) 러시아 석탄의 60%가 채굴되는 쿠즈바스가 위치한 케베로보주 행정부는 올해 러시아 철도 경영진에게 철도운송비 할인을 반복적으로 요청함
- 러시아산 석탄은 3월부터 서쪽 방향(유럽)으로부터 수출손실을 입었고, 동쪽으로부터는 철도 수리로 인해 운송 제한을 받았다고 러시아 석탄 회사가 밝힘
- 유럽시장에서 발전용 석탄(thermal coal)의 가격은 4월 40% 하락하여 톤 당 50달러로 떨어졌으며 이후 톤 당 50~60달러로 유지되었음
- 석탄 가격의 하락과 동쪽으로의 운송처리능력 부족으로 2019년 상반기 쿠즈바스 석탄채굴기업은 발전용 석탄 채굴량을 약 8,300만 톤으로 7% 줄임
- 또한 쿠즈바스의 일부 석탄채굴회사들은 올해 여름, 일시적으로 석탄 생산을 중단하고 연간 생산 계획을 조정했으며, 약 2천명의 광부들이 일감 부족으로 휴가를 보냄

- 쿠즈바스산 석탄의 수요감소는 유럽에서 석탄을 액화 천연가스(LNG)로 교체, 유럽의 따뜻한 겨울, 과도한 석탄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석탄의 유럽 시장 수출지원, 쿠즈바스 석탄의 주요 소비국인 중국이 구매를 중단 및 호주산 석탄 구입 등을 들을 수 있음

김혜나 리포터(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hnpaula@naver.com)

참고자료

- a) <https://www.rbc.ru/business/22/07/2019/5d35dc409a7947aa069fe85f> (2019년 11월 10일 검색)
- b) <https://www.rzd-partner.ru/zhd-transport/news/eksport-uglya-iz-kuzbassa-v-evropu-mozhet-vyrasti-na-39-blagodarya-skidke-rzhd/> (2019년 11월 10 일 검색)
- c) <https://tass.ru/sibir-news/7051637> (2019년 11월 10일)
- d) <https://www.vedomosti.ru/business/articles/2019/06/23/804824-tsena-uglya>(2019년 11월 10일)

러 강원도, 연해주 무역대표단 파견...136만 달러 수출 상담실적 성과

■ 강원도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경제사절단을 파견해 136만 달러 규모의 상담실적을 거둔 것으로 알려짐

- 강원도 러시아본부가 주최하고 도 경제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강원도-연해주 경제사절단은 극동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를 전초기지로 삼아 수출 판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됨
- 지난달 20일 부터 22일까지 도내 우수 중소기업 9개사를 파견해 수출상담회 진행하고 강원도-연해주 상호 상품 전시관 개관식 등 또한 개최됨

■ 사절단은 수출상담회를 중심으로 현지 유력 바이어와 수출 판로를 적극 타진함

- 수출상담회 이전에는 러시아 현지 진출 실무 강의를 통해 참가기업에 러시아 진출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습득할 기회를 제공함
- 결과적으로 도내 중소기업 9개사가 참여해 연해주 기업들과 수출상담회를 벌인 결과 상담 62건에 136만불 상담실적을 이외에도협약은 5건, 25만 달러를 체결함

■ 강원도-연해주 상호 상품전시관은 연해주 수출 지원센터에 도내 우수한 12개 사의 46개 품목이 입점했으며, 앞으로 도 러시아 본부를 중심으로 현지 관심기업에 품목 소개 자료, 도내기업 연락처 제공 등 상호 매칭을 지원할 계획임

- 이신우 강원도 러시아 본부장은 “상대적으로 영세한 도내 수출기업에게 러시아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첫걸음의 일환이며, 교류하는 양 지역 이 모두 윈윈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 한편, 이승섭 강원도 경제진흥원장은 “이번 경제사절단에 파견되는 도내 우수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추후 지속적으로 러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 이라고 도 신북방비즈니스 정책에 박차를 가할 것임

전명수 현지 리포터 국립블라디보스톡경제서비스대학교
(070-5044-9502, msjeon1976@gmail.com)

참고자료

https://zrpress.ru/business/dalnij-vostok_25.11.2019_96520_provintsija-kangvon-otpravila-v-pri-morje-biznes-delegatsiju-dlja-proryva-na-rynok-rossii.html (2019.11.26. 검색)

우크라이나 항만물동량, 2019년 11월까지 호조...서부 및 남동부 지역, 하천을 통한 해양 항만 환적 증가세

■ 서남부 오데사(Odessa) 주에 소재한 피브덴니(Pivdennyi, 러시아어 유즈니Yuzhny) 항의 2019년 11월 환적물동량이 132만 톤을 기록했다

- 이는 계획보다 32%가 증가한 것이며,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 13만 9,800톤(약 12%)가 증가한 것이었음. 11월 총 환적물동량 중 80만 8,000톤이 수출화물, 30만 1,000톤이 수입화물, 21만 1,000톤이 경유화물이었음. 화물은 11월 한 달 만에 19,238대의 무개차(open wagon)과 18척의 화물선(이 중 11척이 화물선의 최고체급인 ‘케이프 사이즈Capesize’ 급)을 통해 처리되었음
- 주요 품목은 광석, 코크스 석탄 및 곡물 가공품이었음. 광석은 77만 6,000톤이 처리되었고, 에너지기업 ‘첸트르에네르고(Centrenergo)’에 납품될 수입산 코크스 석탄 15만 3,000톤과 연료용 석탄 14만 2,000톤이 환적되었음. 그 뒤를 이어 3만 2,000톤 규모의 곡물과 그 가공품이 처리되었음
- 한편 피브덴니 항은 2019년 초부터 현재까지 총 1,370만 톤의 환적량을 처리해오고 있었음. 이 중 64.1%에 해당하는 870만 톤이 수출되었음(광석, 주철, 곡물 및 그 가공품). 한편 전체 수입 물동량의 65.9%인 147만 2,000톤을 코크스 석탄이 차지하고 있음

■ 동부 지역 주요 항만 중 헤르손(Kherson) 항은 2019년 약 350만 톤의 물동량을 처리하며 연간 계획의 100%를 달성했음

- 볼로디미르 하라셴코(Volodymyr Harashchenko) 우크라이나 항만공사 헤르손 지사장은 자사 홈페이지에서 연간 계획의 100%를 달성한 수치인 348만 6,000톤의 물동량 달성에 기여한 항만공사와 선적 하역업체의 협업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성과 달성을 축하하는 내용의 서신을 게시한 바 있음
- 헤르손 항에서 처리된 주요 품목은 농산물로 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옥수수, 질산 암모늄 또한 순위권에 올랐음. 해당 상품의 환적량은 2018년 동 기간과 대비하여 2배 상승하였으며, 환적량 증대의 결정적인 요인으로는 지역 농업 비즈니스의 적극적인 성장과 2019년의 풍작이 있음
- 또한 15만 톤 규모의 수입 디젤연료 또한 헤르손 항의 환적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 바, 향후 물동량 증가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하라센코 지사장은 서신 말미에서, 현재 달성한 수치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 움직여야 하며, 특히안정적인 물동량으로 전환될 전망 있는 상품 유입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음. 여기에는 광석, 클링커(clinker), 석유 코크스(petroleum cokes), 석면실, 비료용 인산 암모니아(ammophos), 암염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한편 동부 지역 항만에서도 낮은 환적 물동량을 보였던 마리우폴(Mariupol) 항 또한 현저히 높은 수치의 물동량 상승률을 보여주었음

- 마리우폴 항의 2019년 11월 물동량은 작년 동기간 대비 12만 5,100톤이 증가한 44만 5,400톤의 수치를 보였음. 이 중 수출은 32만 2,200톤, 수입은 12만 2,100톤을 기록하였음
- 가장 높은 물동량을 보인 품목은 금속(18만 3,500톤)이고, 차례로 석탄(12만 2,900톤), 곡물(6만 7,600톤), 주철(5만 2,300톤)이 뒤를 이었고, 올리브유는 1만 2,600톤으로 작년 동기간 대비 200%가 증가하였음. 이번 달 석탄과 곡물 물동량은 작년보다 각각 627%, 295% 상승한 수치임

그림 1. 주요 항만 위치



조용성 현지리포터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7 981-198-65-06, mirinae2929@gmail.com)

참고자료

- a) [`https://maritimebusinessnews.com.ua/%d1%83-%d0%bb%d0%b8%d1%81%d1%82%d0%be%d0%bf%d0%b0%d0%b4%d1%96-%d0%bf%d0%be%d1%80%d1%82-%d1%8e%d0%b6%d0%bd%d0%b8%d0%b9-%d0%be%d0%bf%d1%80%d0%b0%d1%86%d1%8e%d0%b2%d0%b0%d0%b2-1-%d0%bc%d1%96/2019/12/03/\(2019.12.3.검색\)`](https://maritimebusinessnews.com.ua/%d1%83-%d0%bb%d0%b8%d1%81%d1%82%d0%be%d0%bf%d0%b0%d0%b4%d1%96-%d0%bf%d0%be%d1%80%d1%82-%d1%8e%d0%b6%d0%bd%d0%b8%d0%b9-%d0%be%d0%bf%d1%80%d0%b0%d1%86%d1%8e%d0%b2%d0%b0%d0%b2-1-%d0%bc%d1%96/2019/12/03/(2019.12.3.검색))
- b) [`https://maritimebusinessnews.com.ua/%d0%bc%d0%b0%d1%80%d1%96%d1%83%d0%bf%d0%be%d0%bb%d1%8c%d1%81%d0%ba%d0%b8%d0%b9-%d0%bc%d0%be%d1%80%d1%81%d1%8c%d0%ba%d0%b8%d0%b9-%d1%82%d0%be%d1%80%d0%b3%d0%be%d0%b2%d0%b5%d0%bb%d1%8c%d0%bd%d0%b8%d0%b9/2019/12/03/\(2019.12.3.검색\)`](https://maritimebusinessnews.com.ua/%d0%bc%d0%b0%d1%80%d1%96%d1%83%d0%bf%d0%be%d0%bb%d1%8c%d1%81%d0%ba%d0%b8%d0%b9-%d0%bc%d0%be%d1%80%d1%81%d1%8c%d0%ba%d0%b8%d0%b9-%d1%82%d0%be%d1%80%d0%b3%d0%be%d0%b2%d0%b5%d0%bb%d1%8c%d0%bd%d0%b8%d0%b9/2019/12/03/(2019.12.3.검색))
- c) [`https://maritimebusinessnews.com.ua/%d0%bc%d0%b0%d1%80%d1%96%d1%83%d0%bf%d0%be%d0%bb%d1%8c%d1%81%d0%ba%d0%b8%d0%b9-%d0%bc%d0%be%d1%80%d1%81%d1%8c%d0%ba%d0%b8%d0%b9-%d1%82%d0%be%d1%80%d0%b3%d0%be%d0%b2%d0%b5%d0%bb%d1%8c%d0%bd%d0%b8%d0%b9/2019/12/03/\(2019.12.3.검색\)`](https://maritimebusinessnews.com.ua/%d0%bc%d0%b0%d1%80%d1%96%d1%83%d0%bf%d0%be%d0%bb%d1%8c%d1%81%d0%ba%d0%b8%d0%b9-%d0%bc%d0%be%d1%80%d1%81%d1%8c%d0%ba%d0%b8%d0%b9-%d1%82%d0%be%d1%80%d0%b3%d0%be%d0%b2%d0%b5%d0%bb%d1%8c%d0%bd%d0%b8%d0%b9/2019/12/03/(2019.12.3.검색))
- d) [`maps.google.com`](https://maps.google.com)(2019.12.3.검색)

카자흐스탄 악토베 주, 오렌부르크 간 육로 이용 활성화 기대

■ 지난 달 진행된 러시아 오렌부르크 포럼에서 카자흐스탄 악토베(Aktobe) 주 관내 자이상(Zhaisang) 지역과 오렌부르크를 잇는 육로 확장 계획이 논의 되었음

- 지난 달 말 진행된 ‘오렌부르크 - 유라시아의 심장(Orenburg - Heart of Eurasia)’ 포럼에 참석한 옹다스 오라잘린(Ongdasyn Orazalin) 카자흐스탄 악토베 주지사는 자이상 지역과 오렌부르크를 잇는 육로 확장 계획에 서명함
- 이번 오렌부르크 포럼은 시민의 이익을 위한 유라시아 국가들의 통합과 이니셔티브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벨로루시 등 다양한 국가에서 3,000명 이상이 참석함
- 오렌부르크는 우랄 산맥 최남단에 위치한 지역이자, 카자흐스탄 북서부 지역과 인접해있어 상호 지경학적 이점이 매우 큰 곳임
- 카자흐스탄 악토베 시에서 오렌부르크까지는 A-24번 국도로 연결되어 있고, 철도도 연결되어 있음

■ 악토베 주와 오렌부르크 주 사이에 교역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 간 협력 양상이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오라잘린 주지사는 두 지역 간의 관계가 성공적인 협력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하고, 지역 내 중소기업 및 농업 부문의 교류가 계속 필요하다고 전달함
- 2019년 8개월 간 두 지역 내 교역량은 약 6억 달러에 이르렀고, 악토베 주 내 외국계 기업 총 1,084개 중 러시아 기업이 534개를 차지함
- 또한 기업 간 교류 이외에도 일반인들의 왕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관광분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여 지속가능한 협력 패러다임을 모색함
- 이러한 교류를 위해서는 물류 운송이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두 지역 간 육로 운송 기반시설을 정비해야 한다고 언급함

■ 두 지역 간 국경지대를 정비하여 운수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 현재 카자흐스탄 악토베 주에서 러시아로 진입하는 자이상 국경 통과 지점에서는 물류 운송

트럭들의 대기 시간이 최고 12시간까지 늘어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 국경 인근 국도 50km 구간은 이미 현대화 보수 작업을 마쳤으나, 국경 통과 행정상의 절차로 인해 시간이 지연되는 점이 지적됨
- 아울러 아직 편도 1차선의 도로가 많기 때문에 작년 대비 25%나 증가된 통행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점도 문제로 언급되었으며, 2024년까지 건설예정인 상업지구 조성을 앞두고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논의 됨
- 이처럼 물리적인 육로 정비뿐만 아니라, 국경 통과 절차 간소화 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기존 문제점들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

오상호 리포터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031-330-4145, editor405ca@gmail.com)

참고자료

- a) <https://aktobetv.kz/> (2019.12.01. 검색)
- b) <https://egemen.kz/> (2019.12.01. 검색)
- c) <https://www.inform.kz/> (2019.12.01. 검색)



주요 통계



표 1. 2019년 9월 러시아 수역별 항만 물동량

(단위: 백만 톤, %)

수역*	건화물	액체화물	합계	2018/2019 증가율
극동수역	11.09 (-0.4%)	6.24 (-0.1%)	17.33	-0.3%
북극해	2.92 (+0.2%)	5.87 (-3.2%)	8.78	-1.9%
발트해	9.1 (-0.4%)	12.01 (+0.7%)	21.01	+0.2%
아조프-흑해	8.9 (+0.4%)	13.78 (+0.1%)	22.68	+0.2%
카스피해	0.19 (+2.3%)	0.51 (+11.4%)	0.7	+3.3%
합계	32.1 (-0.2%)	38.41 (-0.1%)	70.51	-0.1%

* 주: 극동수역: 블라디보스톡, 자루비노, 올가, 포시에트,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소비에트카야가반, 데-카스트리스, 네벨스크, 홀름스크, 프리고로드노예, 마가단,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스키

북극해: 무르만스크, 칸달라크샤, 나리얀마르, 두딘카, 아르한겔스크, 오네가, 바란데이, 페벡, 사베타

발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브보스크, 비소츠크, 우스트-루가, 칼리닌그라드

아조프-흑해: 노보로시스크, 겔렌지크, 투압세, 타간로크, 아조프, 로스토프 나 도누, 다망, 템류크, 카프카즈

카스피해: 아스트라한, 올라, 마하치칼라

표 2. 2019년 9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품목 규모

(단위: 천 톤)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식료품 및 원자재	32.1 (-0.2%)	38.41 (-0.1%)	70.51	-0.1%	32.1 (-0.2%)	38.41 (-0.1%)
광물 제품	32.1 (-0.2%)	38.41 (-0.1%)	70.51	-0.1%	32.1 (-0.2%)	38.41 (-0.1%)
연료 및 에너지 제품	32.1 (-0.2%)	38.41 (-0.1%)	70.51	-0.1%	32.1 (-0.2%)	38.41 (-0.1%)
생고무 및 화학 제품	32.1 (-0.2%)	38.41 (-0.1%)	70.51	-0.1%	32.1 (-0.2%)	38.41 (-0.1%)
가죽원료, 모피 제품	32.1 (-0.2%)	38.41 (-0.1%)	70.51	-0.1%	32.1 (-0.2%)	38.41 (-0.1%)
목재 및 펄프, 종이 제품	32.1 (-0.2%)	38.41 (-0.1%)	70.51	-0.1%	32.1 (-0.2%)	38.41 (-0.1%)
섬유, 섬유 제품 및 신발	32.1 (-0.2%)	38.41 (-0.1%)	70.51	-0.1%	32.1 (-0.2%)	38.41 (-0.1%)
금속 및 금속 제품	32.1 (-0.2%)	38.41 (-0.1%)	70.51	-0.1%	32.1 (-0.2%)	38.41 (-0.1%)
기계류	32.1 (-0.2%)	38.41 (-0.1%)	70.51	-0.1%	32.1 (-0.2%)	38.41 (-0.1%)
기타	32.1 (-0.2%)	38.41 (-0.1%)	70.51	-0.1%	32.1 (-0.2%)	38.41 (-0.1%)
합계	32.1 (-0.2%)	38.41 (-0.1%)	70.51	-0.1%	32.1 (-0.2%)	38.41 (-0.1%)

*주: CIS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표 3. 2019년 9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

(단위: 천 톤, 달러)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선어,생물	228	298.5	8	157.3	228	298.5	8	157.3	-	-	-	-
냉동어	104,636	1,607,556.0	2,475	41,564.5	104,551	1,606,927.4	2,475	41,564.5	85	628.6	-	-
연어류	19,884	237,299.0	-	-	19,799	237,064.0	-	-	85	235.0	-	-
넙치	670	21,080.5	-	-	670	21,080.5	-	-	-	-	-	-
가자미	819	13,009.3	-	-	819	13,009.3	-	-	-	-	-	-
가자미류	2,233	28,040.5	-	-	2,233	28,040.5	-	-	-	-	-	-
청어	14,264	66,102.4	-	-	14,264	65,727.7	-	-	452	374.7	-	-
대구	3,157	149,451.2	-	-	3,157	149,451.2	-	-	-	-	-	-
명태	50,760	807,088.8	-	-	50,760	807,088.8	-	-	-	-	-	-
농어	42	1,587.4	-	-	42	1,587.4	-	-	-	-	-	-
간, 곤이 (어란)	1,582	207,262.7	-	-	1,582	207,262.7	-	-	-	-	-	-
지느러미, 머리, 꼬리 등 생선부산물	623	12,147.8	-	-	623	12,147.8	-	-	-	-	-	-
생선필렛, 어육	3,893	150,096.7	55	2,458.6	3,893	150,096.7	55	2,458.6	-	-	-	-
건어, 훈제, 염장, 어분	10	1,212.4	84	4,559.9	10	1,212.4	84	4,559.9	-	-	-	-

갑각류	4,845	735,693. 2	0	0	4,845	735,693. 2	0	0	-	-	-	-
계류	4,015	665,876. 4	-	-	4,015	665,876. 4	-	-	-	-	-	-
조개류	4,664	57,210.4	-	-	4,664	57,210.4	-	-	-	-	-	-
가리비류	31	9,223.3	-	-	31	9,223.3	-	-	-	-	-	-
오징어류, 문어류	4,247	25,136.0	62	2,194.2	4,247	25,136.0	62	2,194.2	-	-	-	-
수산무척추동물	970	25,345.9	-	-	970	25,315.5	-	-	1	30.4	-	-
해삼류	486	6,190.1	-	-	486	6,159.7	-	-	1	30.4	-	-
성게류	294	18,698.1	-	-	294	18,698.1	-	-	-	-	-	-

*주: CIS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표 4. 2019년 1분기, 2분기 운송수단별 물동량

(단위: 백만 톤, %)

교통수단	2019년 1분기	2019년 2분기	2018년 1분기 / 2019년 1분기	2018년 1~6월 / 2019년 1~6월
철도운송	1,422.2	1,714.00	99.2	99.4
자동차운송	319.0	315.30	100.7	98.4
해운	1,091.6	1,367.10	98.8	100.0
내륙수로운송	4.82	4.43	94.2	81.9
항공운송	6.49	26.91	96.1	82.6
파이프라인운송	0.241	0.29	94.0	95.7

표 5. 2019년 1분기, 2분기 러시아 대중교통 여객수송량

(단위: 백만 명, %)

교통수단	2019년 1분기	2019년 2분기	2018년 1~3월 / 2019년 1~3월	2018년 1~6월 / 2019년 1~6월
자동차운송(버스운송)	2,516.8	2,610.3	97.1	97.3
해운	1.080	1.5	68.9	64.1
내륙수로운송	0.336	3.4	89.7	76.3
항공운송:	24.751)	32.9	112.1	111.6
국내운송	14.81	18.4	108.1	109.2
철도운송:	260.0	315.5	104.7	103.5
교외운송 (도시운송 포함)	236.5	286.3	104.5	103.2

올가 연구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thkim@kmi.re.kr/051-797-4783)

참고자료

a) 러시아 극동지역 관세청 자료

b) 러시아 교통부 통계 자료

c) http://www.morvesti.ru/detail.php?ID=80482&sphrase_id=2231358(검색일: 2019년 10월 16일)